

전방 산업 회복과 전기차 충전소 시너지 기대

매수
(신규)

목표가: 37,900원
상승여력: 35.1%

김수진 soojin.kim@miraeasset.com

김규연 gyuyeon.kim@miraeasset.com

실적 전망

23년 매출 1.17조원(+12.3% YoY), 영업이익률 4.6% 전망

- 1Q23 매출 2,707억원(+13.1% YoY), 영업이익 119억원, 영업이익률 4.6%: 소비재 관련 계열사가 많은 동사 특성상, 코로나19 종료로 전방 산업의 회복이 시작되자 IT투자가 개선되면서 두자릿수 YoY 성장률 기록
- 스마트팩토리, 스마트 로지스틱스, 스마트리테일 등의 IT 인프라 관련 투자가 하반기에 갈수록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때 미뤄졌던 프로젝트가 개시되면서 호실적을 기록, 기저효과를 감안해 보수적으로 실적 추정

투자포인트

1. 그룹사 매출 회복에 따른 동사의 실적 회복 기대

- 지난해 면세, 화학, 렌탈 계열사의 IT투자가 증가, 올해 식품사 투자가 확대 예정
- 최근 스마트팩토리가 기업 경쟁력에 핵심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하며 동사의 식품 계열사, 제조사, 유통사 등에서 공장 자동화 등을 진행 중

2. 신사업 기대감: 전기차 충전소 비즈니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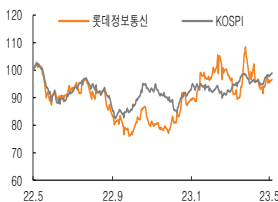
- 22년도 EVSIS 매출은 489억원(+24.4% YoY)로 두자릿수 성장을 기록했고, 1Q23에도 전년동기대비 20% 성장한 것으로 추정

투자의견 및 밸류에이션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7,9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

- fwd 12M EPS에 성장률이 23년 전망치와 유사한 21년도 PER을 적용했는데, 21년 대비 현재 매크로 상황과 지수 수준을 반영해 10% 할인
- 여행 회복과 코로나19 종료로 전방 산업의 반등 기대되지만, 아직 확실한 모멘텀 부재
- 그럼에도 전기차 충전소 등이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강화해 매수 의견 제시

Key data



현재주가(23/5/30,원)	28,050	시가총액(십억원)	432
영업이익(23F,십억원)	54	발행주식수(백만주)	15
Consensus 영업이익(23F,십억원)	56	유동주식비율(%)	31.2
EPS 성장률(23F,%)	44	외국인 보유비중(%)	1.8
P/E(23F,x)	9.8	베타(12M) 일간수익률	0.76
MKT P/E(22F,x)	16.4	52주 최저가(원)	22,100
KOSPI	2,585.52	52주 최고가(원)	31,500

Share performance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0.2	20.4	-5.2
상대주가	-3.4	15.1	-2.2

Earnings and valuation metrics

결산기 (12월)	2019	2020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십억원)	846	850	930	1,048	1,176	1,269
영업이익 (십억원)	41	39	40	34	54	57
영업이익률 (%)	4.8	4.6	4.3	3.2	4.6	4.5
순이익 (십억원)	55	30	35	30	44	46
EPS (원)	3,679	1,940	2,251	1,980	2,853	2,976
ROE (%)	14.8	7.4	8.2	7.1	9.9	9.6
P/E (배)	11.2	20.7	16.1	11.9	9.8	9.4
P/B (배)	1.6	1.5	1.2	0.8	0.9	0.9
배당수익률 (%)	1.7	1.7	1.9	3.0	2.5	2.5

주: K-IFRS 개별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롯데정보통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 실적 및 밸류에이션

실적 리뷰 및 전망

1Q23 실적 리뷰

1Q23 매출 2,707억원(+13.1% YoY), 영업이익 119억원, 영업이익률 4.6%를 기록했다. 지난 4Q 호실적으로 23년에 대해 보수적으로 전망했던 것과 달리 소비재 관련 계열사가 많은 동사 특성상, 코로나19 종료로 전방 산업의 회복이 시작되자 IT투자가 개선되면서 투자릿수 YoY 성장률 기록이 가능했다. 특히 지난해 식품 계열사의 합병으로 전산 투자가 확대됐고, 특히 계열사들이 적극적으로 스마트팩토리 확대에 나서며 SI 사업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전방 산업 업황 회복으로 IT 시스템 뿐만 아니라 스마트팩토리, 스마트 로지스틱스, 스마트리테일 등의 IT 인프라 관련 투자가 하반기에 갈수록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연간 실적 전망

2023 연간 매출은 1조1,760억원(+12.3% YoY), 영업이익 540억원, 영업이익률 4.6%를 예상한다. 하반기에 수주가 몰리는 SI 산업 특성상, 하반기까지 견조한 성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때 미뤄졌던 프로젝트가 개시되면서 호실적을 기록, 기저효과를 감안해 보수적으로 실적을 전망했다.

추가적으로 하반기에는 전기차 충전소 사업 운영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량 이상 설치된 후부터 운영 사업에서 의미있는 실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SI 중 가장 높은 배당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동사의 주당배당금은 700원, 배당성향 37.2%로, 2022년 배당수익률은 3%를 기록했다. 전방 산업 회복과 전기차 사업 수익 본격화로 이익이 늘어난다면 배당성향을 유지하려는 특성에 기인해 배당금이 확대될 수 있다.

표 1. 실적추정표

(십억원)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1Q23	2Q23F	3Q23F	4Q23F	2022	2023F	2024F
매출액	218	237	234	241	239	237	253	318	271	275	278	353	1,048	1,176	1,269
yoy growth(%)	10.3%	8.2%	6.0%	13.7%	9.9%	-0.1%	8.0%	32.3%	13.1%	15.9%	9.9%	10.9%	12.7%	12.3%	7.9%
SM	39	38	38	39	40	42	42	44	44	46	46	46	168	182	188
yoy growth(%)	2.7%	-2.5%	-1.9%	1.0%	3.7%	9.3%	11.7%	13.3%	9.5%	8.7%	8.0%	6.2%	9.5%	8.1%	3.5%
매출 비중	17.8%	16.2%	16.2%	16.0%	16.8%	17.7%	16.8%	13.7%	16.2%	16.6%	16.5%	13.1%	16.0%	15.4%	14.8%
총이익률	12.8%	11.9%	11.1%	12.2%	12.2%	13.7%	12.4%	11.4%	12.5%	11.4%	12.2%	12.2%	76.8%	78.3%	83.9%
SI	179	199	196	202	199	195	210	275	227	229	232	307	880	995	1,082
yoy growth(%)	12.1%	10.5%	7.7%	16.4%	11.2%	-1.9%	7.3%	35.9%	13.8%	17.4%	10.2%	11.6%	13.3%	13.1%	8.7%
매출 비중	82.2%	83.8%	83.8%	84.0%	83.2%	82.3%	83.2%	86.3%	83.8%	83.4%	83.5%	86.9%	84.0%	84.6%	85.2%
총이익률	3.5%	4.6%	4.7%	1.8%	3.4%	4.1%	5.8%	6.9%	6.0%	5.3%	5.4%	7.4%	6.2%	7.2%	7.2%
판관비	7	9	9	11	14	16	15	14	14	16	14	13	59	57	51
영업이익	11	12	14	3	5	3	11	16	12	13	13	17	34	54	57
영업이익률	5.1%	5.0%	6.1%	1.1%	2.1%	1.1%	4.3%	4.9%	4.4%	4.6%	4.6%	4.7%	3.3%	4.6%	4.5%
EPS	812	593	690	156	190	106	387	1,160	537	579	572	837	1,844	2,524	2,597

자료: 롯데정보통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의견 및 밸류에이션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7,9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목표주가는 fwd 12M EPS에 성장률이 23년 전망치와 유사한 21년도 PER을 적용했는데, 21년 대비 현재 매크로 상황과 지수 수준을 반영해 10% 할인했다.

여행업 회복과 코로나19 종료로 전방산업의 반등이 기대되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본격적인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비록 SI 업체 전반적으로 계열사 공장의 스마트팩토리 전환과 계열사 IT인프라의 디지털화 가속화가 진행 중이나, 결정적인 모멘텀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동사의 경쟁력 있는 신사업들은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강화한다. 특히 전기차 충전소 플랫폼은 국내 3개사가 과점하는 형태인데, 동사가 유통사, 택배사 등의 대형 주차장 보유 계열사와의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운영 플랫폼으로서의 성장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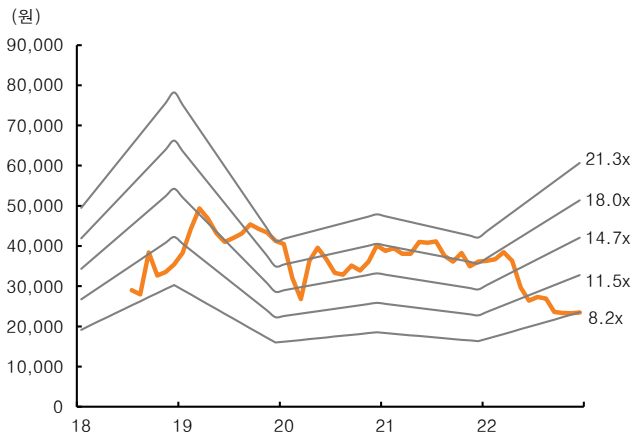
메타버스가 최근 들어 소외받고 있는 테마이지만, 궁극적으로 인터넷이 메타버스로 전환될 것을 확신하며, 역시나 계열사와의 시너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한다.

표 2. 밸류에이션

	값	비고
예상 fwd EPS(원)	2,632.3	fwd 12M EPS
주식수(백만주)	15.4	
Target P/E(x)	14.4	성장을 유사했던 21년도 PER에서 시장 및 지수 상황 반영해 10% 할인
목표주가(원)	37,900	
현재주가(원)(23/5/30)	28,050	
상승여력	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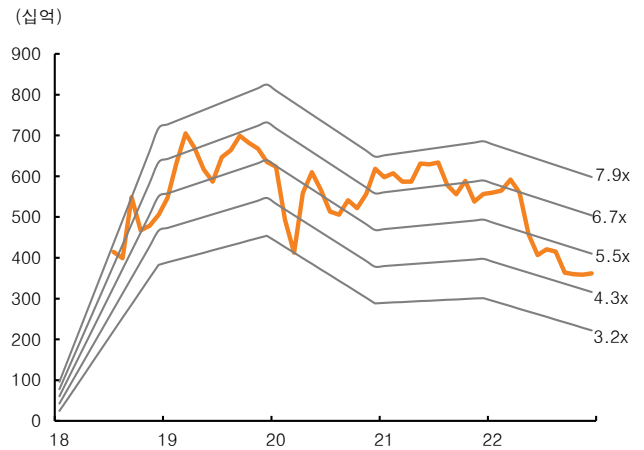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 1. PER 밴드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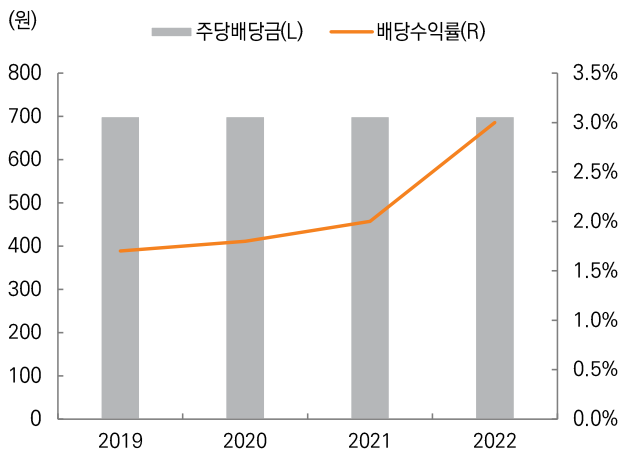
자료: Fn가이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EV/EBITDA 밴드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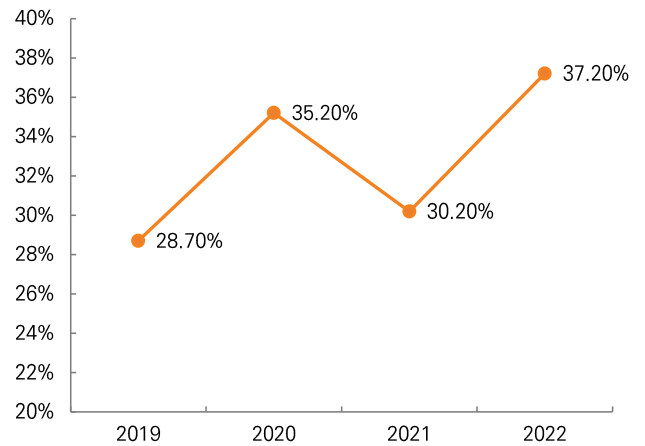
자료: Fn가이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주당배당금 및 배당수익률



자료: 롯데정보통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배당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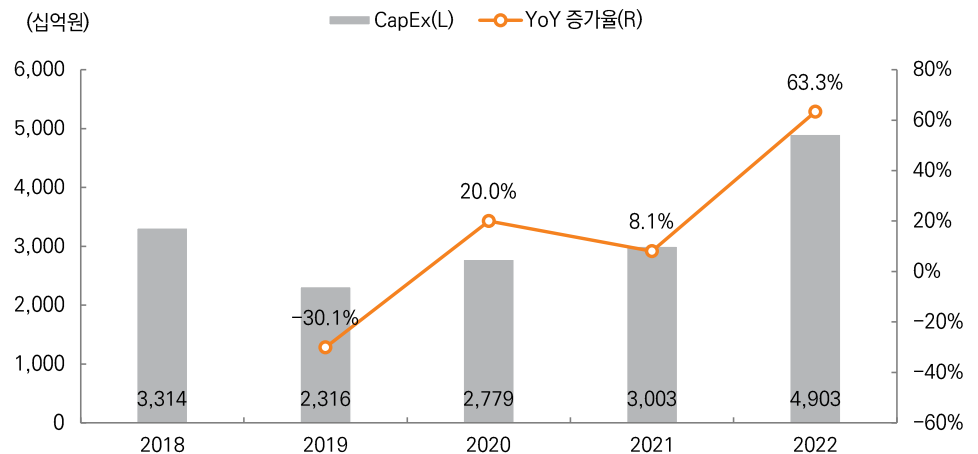
자료: 롯데정보통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I. 투자포인트

1. 그룹사 매출 회복에 따른 동사의 실적 회복 기대

계열사의 전방 산업 회복뿐 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 디지털 혁신이 중요해지면서 동사의 역할이 확대 중이다. 지난 해는 면세, 화학, 렌탈 계열사의 IT투자가 증가했고, 올해는 식품사들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스마트팩토리가 기업 경쟁력에 핵심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하며 동사의 식품 계열사, 제조사, 유통사 등에서 공장 자동화 등을 진행 중이다. 스마트팩토리 확대 방향성은 SI 업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수많은 제조 계열사를 보유한 동사 역시 이를 통한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5. 11개 계열사 합산 CapEx 추이



주: 계열사는 롯데렌탈,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케미칼, 롯데웰푸드, 롯데손해보험, 롯데정밀화학, 롯데하이마트, 롯데지주, 롯데에너지머티리얼, 롯데정밀화학 총 11개 상장사 Capex 합산
 자료: QuantiWi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3. 주요 프로젝트 현황

계열사	프로젝트명	기간
화학사	포장자동화 구축	21년 12월 ~22년 10월
식품사	빙과 통합 S&OP 고도화	22년 10월~23년 5월
식품사	신인천 RDC 자동화설비	22년 8월~24월 3월
화학사	인니 LINE 자동창고	22년 6월~24년 8월
유통사	물류 BPO WMS 적용	22년 10월~24년 10월
제조사	진천/평택공장 확대구축	22년 10월~23년 5월

자료: 롯데정보통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 신사업 기대감: 전기차 충전소 비즈니스 확대

동사는 2020년부터 신사업 확대에 집중하면서 21년 메타버스 플랫폼 칼리버스 인수, 데이터센터 추가 완공에 이어 22년 전기차 충전업체인 중앙제어 지분에 690억원을 투자해 50.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 사업은 우선 유통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전기차를 충전할 때 일정 수준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쇼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해 전체 주차면수에 구축은 2%, 신축은 5%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는 마트, 백화점, 택배사 차고지 등에 충전기 설치를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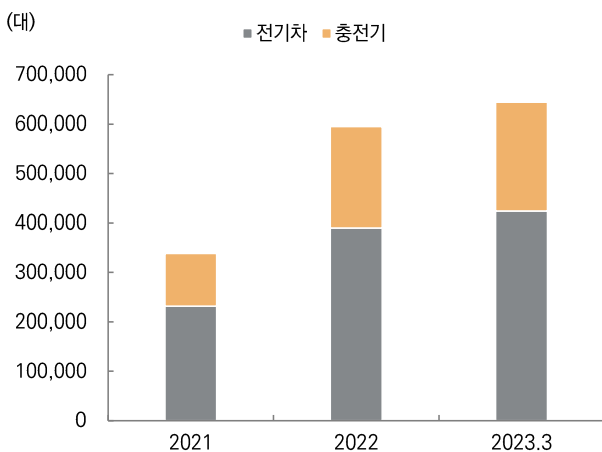
아직까지 한국의 충전소 설치는 글로벌 대비 부족하다. 전기차 100대 당 충전기 수가 영국은 318.5개, 미국은 185.3개인데 반해, 한국은 50.1개다. 전기차가 22년 43만대였으나, 25년 113만대, 2030년 300만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충전소 Q의 증가는 필연적이다.

국내에 충전소 판매업체는 동사와 SK시그넷, 대영채비 3개사가 대표적인데, 최근 SK시그넷은 국내보다 해외 진출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충전기 비즈니스 모델에는 급속충전과 완속충전이 있는데, 급속충전이 더 고마진이고 동사에 경쟁력이 있다. EVSIS는 현재 충전기 제조에 집중하고 있으나, 일정 수준으로 충전기가 구축되면 운영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운영은 recurring revenue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흑자전환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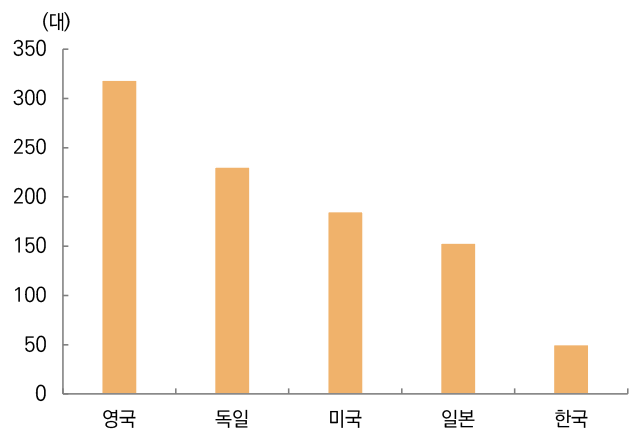
22년도 EVSIS 매출은 489억원(+24.4% YoY)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고, 1Q23에도 전년동기 대비 20% 성장한 것으로 추정한다. 충전기 확대로 동사의 탑라인 성장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6. 국내 전기차/충전기 등록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환경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국가별 전기차 100대 당 충전기 수



자료: 한국자동차연구원,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EVSIS 이용 요금제

스탠다드	프리미엄
출퇴근/도심 주행이 많은 고객에게 유리	장거리 주행이 많은 고객에게 유리
10,000원 / 월	27,900원 /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300kWh까지 EVSIS 급속 이용요금 최대 50% 할인 출퇴근 또는 도심 내 주행이 많은 고객에게 유리 온라인 충전예약 기능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1,300kWh까지 EVSIS 급속 이용요금 최대 50% 할인 장거리 주행이 많은 고객에게 유리 온라인 충전예약 기능 제공

자료: EVSI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EVSIS 충전기



자료: EVSI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충전기 비즈니스 모델 유형

■ 충전기 비즈니스 모델 유형

급속 충전	완속 충전
도로	직장
쇼핑	가정
차고지	

- 휴게소 등
- 롯데쇼핑, H사 등
- 롯데택배, 렌탈 등
- S사 인제개발원 등
- 롯데건설 등

자료: 롯데정보통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전기차 충전 밸류체인



자료: 롯데정보통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II. 기업 소개

동사는 1996년 설립됐고, 2018년 상장했다. 20년도부터 사업 다각화에 집중하면서 21년도 메타버스 플랫폼 칼리버스를 인수했고, 같은 해 제4데이터센터를 개관하는 등 데이터센터 비즈니스도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22년에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중앙제어의 지분 50.4%를 인수해, 작년 사명을 EVSIS로 변경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부는 SM사업부와 SI사업부로 나뉜다. SM사업부는 과거 전산실과 같은 역할을 해, 그룹사의 IT 부서를 관리하고 외주 업무 관리를 담당한다. SI사업부는 소프트웨어 구축, 개발을 진행하고, 최근 진행 중인 신사업 - 데이터센터, 메타버스, 전기차 충전소 -도 SI사업부에 속한다. Captive 비중은 전체에서 65% 수준이고, 신사업으로 Non-Captive 비중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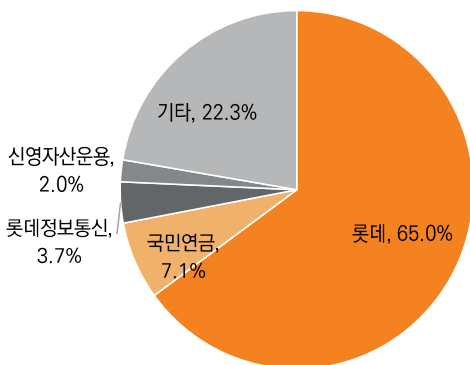
22년 처음으로 연간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22년 배당성향 37.2%, 배당수익률 3%를 기록했고, 배당성향을 올해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표 4. 기업 연혁

연도	내용
1996	회사 설립
2004	롯데전자 합병
2007	통합데이터센터 개소
2011	현대정보기술 인수
2016	롯데 모바일상품권 출시
2017	물적분할 후 신설법인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 출범
2018	코스피 상장
2019	현대정보기술 합병
2021	메타버스·VR 기업 비전브이알 인수 무인형 자율주행셔틀 국내 첫 임시운행허가 획득
2022.1	전기차충전업체 중앙제어 지분 71.14% 인수
2023	K-UAM 실증사업 MOU 체결
2023.3	전기차 충전 플랫폼 자회사 중앙제어, 사명 EVSIS로 변경

자료: 롯데정보통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주요 주주구성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외국인지분율 추이



자료: 퀀티와이즈,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5. 피어 밸류에이션

기업명	티커	결산월	주가 (현지통화)	시가총액 (백만USD)	수익률				P/E				EV/EBITDA			
					5D	3M	6M	12M	-1FY	0FY	1FY	2FY	-1FY	0FY	1FY	2FY
롯데정보통신	286940	12월	28,050	331.7	0.9	-2.9	22.3	-4.0	15.8	11.7	9.6	8.1	6.2	5.1	3.9	2.8
삼성SDS	018260	12월	124,900	7,270.9	1.2	-0.8	-2.5	-16.3	19.8	8.7	14.0	12.8	6.6	3.9	3.5	2.9
현대오트모터	307950	12월	123,700	2,585.2	-2.3	9.8	12.3	-6.9	51.1	23.0	25.4	22.2	17.7	8.0	9.0	8.0

주: 2023년 5월 30일 종가 기준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롯데정보통신 (286940)

예상 포괄손익계산서 (요약)

(십억원)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930	1,048	1,176	1,269
매출원가	854	954	1,065	1,161
매출총이익	76	94	111	108
판매비와관리비	36	59	57	51
조정영업이익	40	34	54	57
영업이익	40	34	54	57
비영업손익	4	2	-2	-2
금융손익	0	-3	-2	-2
관계기업등 투자손익	0	0	0	0
세전계속사업손익	44	36	52	55
계속사업법인세비용	10	8	11	12
계속사업이익	35	28	41	42
중단사업이익	0	0	0	0
당기순이익	35	28	41	42
지배주주	35	30	44	46
비지배주주	0	-2	-3	-3
총포괄이익	30	24	40	42
지배주주	30	26	44	47
비지배주주	0	-2	-4	-5
EBITDA	82	80	104	110
FCF	50	-21	-17	49
EBITDA 마진율 (%)	8.8	7.6	8.8	8.7
영업이익률 (%)	4.3	3.2	4.6	4.5
지배주주귀속 순이익률 (%)	3.8	2.9	3.7	3.6

예상 재무상태표 (요약)

(십억원)	2021	2022	2023F	2024F
유동자산	349	366	382	432
현금 및 현금성자산	147	83	72	108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30	183	203	212
재고자산	8	37	41	42
기타유동자산	64	63	66	70
비유동자산	401	506	557	555
관계기업투자등	0	0	0	0
유형자산	291	303	372	381
무형자산	44	110	104	92
자산총계	750	872	940	986
유동부채	211	278	304	317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25	145	160	167
단기금융부채	3	23	21	21
기타유동부채	83	110	123	129
비유동부채	106	140	152	154
장기금융부채	103	93	99	99
기타비유동부채	3	47	53	55
부채총계	317	418	456	470
지배주주지분	433	425	458	494
자본금	77	77	77	77
자본잉여금	312	312	312	312
이익잉여금	110	126	159	194
비지배주주지분	0	29	26	22
자본총계	433	454	484	516

예상 현금흐름표 (요약)

(십억원)	2021	2022	2023F	2024F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7	14	98	99
당기순이익	35	28	41	42
비현금수익비용가감	58	67	66	67
유형자산감가상각비	34	35	39	41
무형자산상각비	8	11	11	12
기타	16	21	16	14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및부채의변동	3	-78	0	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27	-49	-19	-9
재고자산 감소(증가)	5	-19	-4	-2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13	14	13	6
법인세납부	-9	-3	-9	-1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3	-101	-108	-47
유형자산처분(취득)	-37	-35	-114	-50
무형자산감소(증가)	-14	-12	-4	0
장단기금융자산의 감소(증가)	10	0	0	0
기타투자활동	-82	-54	10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5	23	-1	-16
장단기금융부채의 증가(감소)	101	10	5	0
자본의 증가(감소)	0	0	0	0
배당금의 지급	-11	-11	0	-11
기타재무활동	-5	24	-6	-5
현금의 증가	49	-64	-11	36
기초현금	97	147	83	72
기말현금	147	83	72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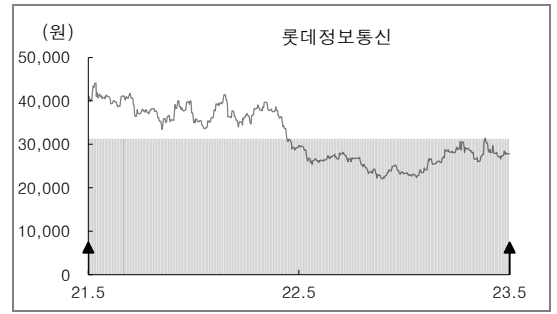
예상 주당가치 및 valuation (요약)

	2021	2022	2023F	2024F
P/E (x)	16.1	11.9	9.8	9.4
P/CF (x)	6.0	3.8	4.1	3.9
P/B (x)	1.2	0.8	0.9	0.9
EV/EBITDA (x)	6.3	5.3	4.8	4.2
EPS (원)	2,251	1,980	2,853	2,976
CFPS (원)	6,031	6,193	6,910	7,127
BPS (원)	28,962	28,424	30,585	32,874
DPS (원)	700	700	700	700
배당성향 (%)	30.6	37.2	26.1	25.0
배당수익률 (%)	1.9	3.0	2.5	2.5
매출액증가율 (%)	9.5	12.7	12.3	7.9
EBITDA증가율 (%)	6.8	-2.2	30.1	5.6
조정영업이익증가율 (%)	3.1	-14.3	57.7	5.2
EPS증가율 (%)	16.0	-12.0	44.1	4.3
매출채권 회전을 (회)	8.0	6.7	6.1	6.1
재고자산 회전을 (회)	86.1	46.8	30.4	30.6
매입채무 회전을 (회)	7.2	7.6	7.7	7.8
ROA (%)	5.0	3.5	4.5	4.4
ROE (%)	8.2	7.1	9.9	9.6
ROIC (%)	9.2	6.6	8.9	8.3
부채비율 (%)	73.1	92.1	94.2	91.2
유동비율 (%)	165.3	131.8	125.7	136.3
순차입금/자기자본 (%)	-9.9	6.8	8.1	0.6
조정영업이익/금융비용 (x)	62.7	8.1	10.7	11.2

자료: 롯데정보통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과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롯데정보통신 (286940)				
2023.05.31	매수	37,900	-	-
2021.03.22	분석 대상 제외		-	-



* 과리율 산정: 수정주가 적용, 목표주가 대상시점은 1년이며 목표주가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전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함

투자의견 분류 및 적용기준

기업	산업
매수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20%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높거나 상승
Trading Buy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수준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10% 이내의 등락이 예상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낮거나 악화
매도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 이상의 추가하락이 예상	

매수(▲), Trading Buy(■), 중립(●), 매도(◆), 주가(-), 목표주가(↔), Not covered(■)

투자의견 비율

매수(매수)	Trading Buy(매수)	중립(중립)	매도
85.7%	10.7%	2.9%	0.7%

* 2023년 03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